

청계천과 천변 ; 공간과 상징의 역사적 변천

전우용*

1. 머리말

인간의 삶은 특정한 공간 위에서만 영위된다. 그리고 그 공간은 특정한 기후적, 지형적 조건을 구유(具有)한 구체적 공간이다. 특정한 공간 위에 펼쳐져 있는 자연환경은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일차적 요인이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생활양식,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킨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쌍방적이며 상호적이다. 오직 인간만이 자연을 개조하여 스스로의 생활조건을 바꿀 수 있다. 역사의 발전은 곧 인간의 자연개조 능력, 자연관리 능력의 발전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양자간의 관계는 부단히 변화하며, 그를 반영하여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 역시 변화한다. 인간은 일차적으로 자연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연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연을 개조한다. 그러나 또한 당대 권력의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지향도 공간에 대한 권력의 장악 - 국가든 자본이든 - 양태를 특징짓는 주된 규정요인이다. 공간은 단순히 인간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인간 삶의 방향과 내용에 규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의 시선과 동선, 그리고 감성까지를 규율하는 기제로서, '체제의 상징'이기도 하다. 중세국가에서 유교적 이상정치, 또는 기독교적 섭리를 '지상에 구현'하고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지상 공간에 대한 인간의 '개입'으로 실현되었으며, 그 개입에 의해 구체화된 공간은 다시 그 공간 위에서, 또는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행사하였다. 군주의 초월적 권한을 선언한 절대주의 시대, 자본의 전면적 승리를 선포한 자본주의 시대에도 시대의 주역들은

*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자신들의 공간을 '시대이념'에 맞추어 개조하였고, 그를 통해 시대이념의 영
원성을 과시하고자 했다.

그런데 인간이 특정 공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각각의 공간은 그와
관련된 상징성을 체화하기 마련이다. 공간 위에 자리잡은 건조물과 관련해서
거나, 아니면 공간에 대한 일상적 이용방식과 관련해서거나, 인간은 대체로
공간을 상징으로 인지한다. 그 때문에 신성한 공간이나 권위적인 공간이 있
는가 하면, 불결하게 느껴지거나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공간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체화된 상징성은 때로 그 공간 위의 건조물이 소멸한 후에도, 나아가
그 공간 자체가 소멸한 뒤에도 지속된다.

현재 청계천로가 되어 있고, 그 위로는 청계고가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양
옆으로는 각종 상점이 즐비한 청계천은 이미 소멸한 공간요소이다. 그러나
그것은 서울이 조선 왕조의 수도가 된 이래 600년 가까이 서울 한복판을 흐
르면서 서울 주민의 일상적 시선을 자극하고,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
었던 중요한 공간요소였다. 조선시대의 청계천은 도성내 가로와 건축물의 배
치를 규정한 풍수적 요인으로서의 명당수(明堂水)였으며, 도성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빨래터이자 하수도였다. 이곳은 또 명절의 놀이터였고, 거지들의
생활터전이기도 했다. 청계천은 서울의 한복판을 흐르는 도시내 소하천(小河
川)으로서, 스스로 수많은 도시 기능을 감당해야 했고 그런 만큼 풍부한 상
징성을 지닌 곳이었다. 1961년에 도성내 구간이, 이어 1967년에 그 하류 구
간이 모두 복개됨으로써 청계천은 서울 주민의 시야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
추어 버렸지만, 그 이전 6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청계천에 부여되었던 상징
성까지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다. 청계천이 만들어낸 상징성은 그 이후의
도시계획에서, 건설에서, 공간 이용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청계천 물길을 되살리고자 하는 논의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
는 지금, 그 상징성을 재검토하는 일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 글은 서울
정도 이래 청계천이 실질적으로 소멸할 때까지, 청계천과 천변이 서울 주민
의 일상생활을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규율해 왔는가, 또 서울 주민과 국가
권력은 청계천을 어떻게 대해 왔고, 어떻게 개조하고자 하였으며 결국 어떻

게 처리했는가, 나아가 그 과정에서 서울 주민들의 청계천과 천변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조선시대의 청계천

1) 조선 전기의 개천(開川)과 천변

(1) 공간구조

청계천은 경복궁 서북의 백운동에서 발원한 청풍계천(淸風溪川)을 본류로 하여 도성안의 백악, 인왕산, 남산, 태봉 등의 여러 물줄기를 모으면서 서울 도성의 중심부를 관류하여 오간수문(五間水門)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13.7km의 하천이다.¹⁾ 개천 본류의 하폭(河幅)은 10-30m 정도였으며, 지류들은 하폭 10m 이하의 소하천들이었다.²⁾ 하천은 도성 내부를 거의 정확히 양분하였기 때문에, 정도 직후 서울의 설계에 기본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청계천 이북(이동)의 궁궐, 관아, 상가(商街), 상층(上層) 민가 지대와 청계천 이남의 중하층 민가지대로 크게 구분되었다. 청계천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上下) 이원적(二元的)인 서울의 공간적 위계가 정해진 것이다.³⁾ 그런 점에서 청계천은 조선왕조 개창 직후부터 도성안을 지리적으로 구분하였을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구분하는 상징적 계선이였다. 이러한 구분의식은 개항기에도 대체로 지속되어 외국 공관들은 모두 청계천 본류의 이남(충무로의 일본공관과 명동의 중국공관)과 이서(정동 일대의 구미공관), 즉 공간 위계상 하위 영역에 분포하였

1) 조선시대 내내 淸溪川은 開川으로만 불렸을 뿐 별다른 이름을 갖지 못했다. 淸溪川이라는 이름은 일제 강점후 朝鮮淸河川습이 제정되면서 부여된 것으로, 淸風溪川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김기빈, 1993 『서울 땅 이름 이야기』 살림터, 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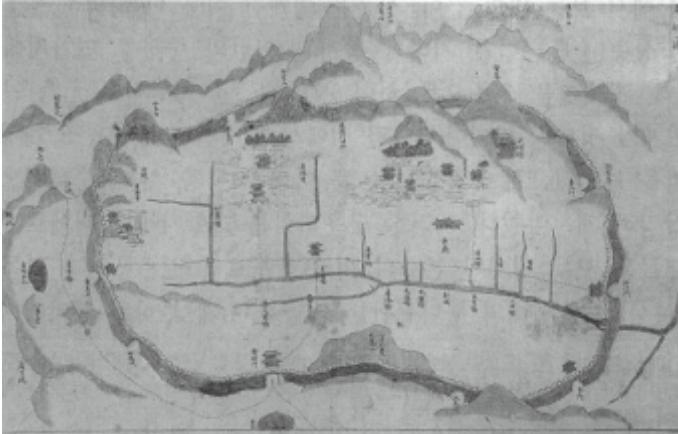
2) 박문호·이상석·양진희, 1996 「역사적 변천을 통해서 본 서울시 자천의 현대적 활용방안」 『서울학연구』 7, 102쪽.

3) 이규목·김한배, 1994 「서울 도시경관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학연구』 2, 17쪽.

다.⁴⁾ 서울 간선도로망 역시 청계천의 흐름을 따라 배치되어 경복궁 - 황토현, 종루 - 동대문간이 간선도로로 기능하게 되었고, 이는 사대문 중 동대문과 남대문에 우월적 지위가 부여되는 배경이 되었다. 청계천이 동서(東西)로 관류한 반면 그 지천(支川)은 대개 남북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서울의 중로(中路)나 소로(小路) 역시 물길의 흐름을 따라 남북 방향으로 개착되었다. 따라서 대로는 동서(東西) 방향, 중로(中路)는 남북방향이라는 서울의 특징적인 도로망이 만들어졌고, 이는 현재 강북 도심 지역의 도로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백악 계곡에서 흘러나온 청계천의 상류는 조선왕조의 정궁(正宮)이었던 경복궁을 해자(壕字)와 같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로써 청계천은 왕궁(王宮) 권역과 다른 권역을 구획하면서 왕궁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격리선 구실을 했다. 반면 창덕궁의 문을 나서면 바로 종묘를 지나 시전가에 이를 수 있었다. 경복궁이 왕실 권위의 상징처럼 인식된 것은 이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청계천 바깥(以西)에 있던 경덕궁(경희궁)은 서대문을 가로막으면서 서울 도성이 서쪽으로 발전하는 것을 제약하는 구실을 했다.

〈그림 1〉 都城圖



4) 한 때 일본공사관이 청계천 이북의 校洞에 자리잡은 적이 있었으나 갑신정변과 관련하여 소실된 후 바로 남산으로 옮겨 갔다.

(2) 재해(災害)와 개천(開川)

개천(開川)이라는 말은 자연상태의 하천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작용에 의해 변형된 하천이 곧 개천이다. 도성 안을 흐르는 하천은 음용수로도, 농업용수로도, 교통로로도 부적격이었다. 그것은 고작 빨래 등을 위한 허드렛물이나 하수도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었다.⁵⁾ 도성내 하천은 주민 생활에 편익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 보다는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더 컸다. 위해는 무엇보다도 하천의 범람이었다.

1406년(태종 6) 서울로 재차 환도한 직후 태종은 창덕궁 조성 and 동시에 개천 역사(役事)를 명했다. 이 때 동원된 인원은 600여명이었는데,⁶⁾ 이 정도 인원으로 개천사업이 대규모로 시행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음해(1407) 바로 서울의 하천이 범람해 버렸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1411년(태종 11) 11월, 개천도감(開川都監)이 설치되었고 뒤이어 충청, 강원, 전라도 일대에서 52,800명의 인원을 동원한 대규모 개천공사가 시작되었다.⁷⁾ 이에 따라 자연하천이 비로소 개천이 되었다. 이 때의 공사는 일부 구간의 하상을 파내고 하폭을 넓히는 한편 돌과 나무로 제방을 쌓는 것이었다.⁸⁾ 광통교, 혜정교 등 도성내 대로와 연계되는 중요한 다리는 석교로 바꾸었다.⁹⁾ 개천 역사가 종결된 후, 개천도감은 그대로 행랑조성도감(行廊造成都監)이 되었다.¹⁰⁾ 개천 공사는 바로 종로변의 행랑 조성을 위한 전제를 마련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개천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세천(細川)과 지천(支川)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이후로도 개천은 수시로 범람했다.¹¹⁾ 민가와 교량이

5) 滯留川의 하수처리 기능은 서울내 인위적 하수처리시설의 조성을 불필요하게 했다. 이는 도시 입지에 천혜의 조건일 수도 있었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도시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일 수도 있었다.

6) 『太宗實錄』卷 11, 6년 1월 6일 丁未.

7) 『太宗實錄』卷 22, 11년 閏12월 1일 丁巳.

8) 藏義洞 어구로부터 宗廟洞 어구까지, 文昭殿과 昌德宮 문앞은 모두 돌로, 宗廟洞 어구로부터 水口門까지는 나무로 방축을 쌓았다.

9) 이 때 석교로 축조된 것은 금청교, 종점교, 중학교, 혜정교, 모전교, 광통교였다. 조선시대 청계천과 그 지류에 놓인 다리는 도성 안에만 76개였다. 박문호 외, 앞의 글, 107쪽 및 이경재, 1993 『서울정도 600년』 3, 서울신문사, 47-8쪽.

10) 『太宗實錄』卷 23, 12년 2월 15일 庚午.

11) 이경재, 앞의 책, 48쪽.

떠내려가는 일도 비밀비재했다. 도성 주위에 계곡이 많았던 만큼 세천(細川)도 많았고, 집중호우시에는 일시에 물이 불어 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개천은 유량의 변화가 많고 유속도 빠른 하천이었다. 따라서 이후에도 개천 사업은 지속되어야 했다. 세종대에는 개천역사를 지속하는 한편,¹²⁾ 도성의 개수(改修)와 방수(防水) 방화(防火)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이 설치되었고,¹³⁾ 성종대에는 개천가에 버드나무를 심어 수해에 대비했다.¹⁴⁾ 그렇지만 국초의 개천사업 이후로 영조대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의 대규모 역사는 없었고, 또 그럴만큼 준천(灌川)이 절실한 상황도 아니었다.

한편 개천은 최적의 자연적인 하수도이기도 했다. 조선초기 그 용도를 둘러싼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세종대에 개천의 용도는 하수도로 낙착되었다.¹⁵⁾ 이는 세종대의 위민정치(爲民政治) 사상에 따른 것이었고, 인구 10만 내외의 도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판단이기도 하였지만, 조선 후기 인구의 증가와 자연재해의 빈발이라는 상황에서 개천이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되는 근본적인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3) 천변(川邊)

개천 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천변(川邊)은 항상적인 침수 위험지대였다. 이곳에는 관아(官衙)도 상가(商街)도 들어설 수 없었다. 민가라 하더라도 뒤늦게 세민(細民)의 소호(小戶)가 일부 들어섰을 뿐이었다.¹⁶⁾ 그나마 여러차례 침수피해를 겪으면서 이들 민가 역시 축차로 이전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천변(川邊)은 조선 중기까지 잡인(雜人)들의 소굴로 남아 있었다.¹⁷⁾ 특

12) 『世宗實錄』 卷 61 15년 7월 27일 戊寅.

13) 『世宗實錄』 卷 65 16년 7월 7일 壬午.

14) 『成宗實錄』 卷 7 元年 9월 26일 辛丑.

15) 『世宗實錄』 106卷 26년 12월 21일 丙寅 ; 長野末喜, 1932 『京城の面影』, 内外事情社, 377-8쪽 ; 京城府, 1934 『京城府史』 1, 144쪽.

16) 서울의 인구가 조금 늘어난 세종대에 가서야 水口門 밖 개천 하류 지역이 漢城府의 관할 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세종 26년 6월에 개천 이북에는 崇恩坊과 昌仁坊이, 이남에는 禮盛坊과 誠身坊이 각각 설치되었고, 집터를 원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아 이 때에야 이 일대에 가옥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 『世宗實錄』 卷 26, 6년 11월 14일 乙酉.

17) 1526년 5월 漢城府, 刑曹, 捕盜廳의 합동 公事에 이르기를 "동대문안 두 개의 다리 사이에 있는 큰 길 남쪽과 開川 북쪽에 있는 人家의 과반은 才白丁들입니다.

히 개천 다리 밑은 거지, 부랑자들의 집합소였다.¹⁸⁾ 그리하여 개천은 우범지대였고, 시체유기장소이기도 했다.¹⁹⁾ 도성안에서 살인사건이 나면, 그 시체는 으레 개천에서 발견되곤 했다. 그나마 이 때의 천변 거주지는 종로 남측, 즉 개천 북변에만 형성되어 있었다. 남산 아래의 남측면은 남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과 개천이 합류하는 지대가 넓었던 관계로〈그림 1〉 1880년대의 청계천 수표교 주변에 조차 민가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표교에서 관수교에 이르는 구간의 남쪽 일대는 훈도방(薰陶坊)에 속해 있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광해군대에도 “땅은 편재(偏在)하고 도로도 나쁘며 조시장(朝市場)이 먼 고로 시류를 좇고 명세(名勢)를 구하는 사(士), 또는 이익을 쫓는 사람들은 이 부근에 거주하지 않고 오직 겨우 책 만드는 기술 밖에 없는 자, 사대부로서 독서(讀書) 양병(養病)하는 자만이 거주한다. 이러한 상태는 국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았고, 그를 다른 동리에 비하면 적막(寂寞) 무료(無聊)하다 할 것이다”라 하여 이 일대의 인구밀도가 극히 낮았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⁰⁾

평시의 개천은 빨래터였으며, 하수도였다. 이미 세종조에 하수로 인한 개천의 오염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며, 사복시(司僕寺)를 이곳으로 옮겨 마필(馬匹)의 분노를 개천에 흘려보내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보다 앞서 태종조에 시전 공랑을 설치하면서, 천변은 우전(牛廐)의 자리로 배정되었다. 물론 우전은 따로 공랑을 갖지 않고 노천에서 영업했다. 따라서 개천의 범람은 단순한 범람이 아니라 오물의 범람이었다. 또 세종대 이후로도 소규모의 준설은 계속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천변 주민들은 준설이라는 노역(勞役)을 담당해야 했다. 천변은 성내 거주지로서는 최악의 조건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도성의 안팎에서 도둑떼가 서로 인연하여 드나들며 도둑의 소굴을 만들고 있습니다.”라 했다. 『中宗實錄』 卷57 21년 5월 5일 丁亥.

- 18) “서울 거지떼의 움집이 종루거리 大廣通橋나 중부 낙선방에 있는 孝經橋 밑에 대개 있다” 『漢京諸略』 「橋梁」
 19) “城中에서 가끔 人命을 함부로 살해하여 市路 사이에 버리기도 하고 혹은 開川의 물에다 던지기도 하니...” 『太宗實錄』 卷 29, 15년 6월 25일 庚寅. ; “屍身を 개천에 버리고자 敦義門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城에 들어가 三間屏門의 개천에 버렸습니다...” 『成宗實錄』 卷 217 19년 7월 7일 己亥 ; “松針橋 밑에 유기한 시체가 배로 목이 매어져 있다.....” 『中宗實錄』 卷43 17년 1월 18일 丙寅 등.
 20) 京城府, 1934 앞의 책, 554쪽.



〈그림 2〉 대한제국기의 광고 주변

다만 광고 주변은 천변에서도 예외적인 곳이었다. 혜정교와 광고 일대에는 시전 행랑이 건설되어 있었고,²¹⁾〈그림 2〉 참조) 이들 다리를 통해 바로 운종가와 남대문으로 진출할 수 있었으니 이 부근에는 부상

대고(富商大賈)들의 대가(大家)가 적지 않게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인다.²²⁾ 또 광고는 정월 대보름의 답교놀이 장소였고, 수교놀이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곳이었다.²³⁾

2) 조선후기 준천(濬川)과 천변(川邊)

(1) 인구증가

임진(壬辰), 병자(丙子)의 두 차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울 인구는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양란 이후 전국적으로 인구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구는 이윽고 전전(戰前)의 수준을 회복했고, 이어 성밖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1657년(효종 8) 한성부의 호구는 15,776호, 80,572구(口)였으나, 불과 10여년 후인 1669년(현종 10)에는 23,899호, 194,000구로 급증했다.²⁴⁾ 진휼제도의 정비, 농업생산력의

21) 소위 雲從街 역시 종로 1가 광화문동 남단에서 종로 십자로에 이르는 구간으로서, 청계천 해당 구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京城府, 1934 『京城府史』 1, 150쪽.

22) 영조대 濬川을 실시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부 가옥을 훼손하였는데, 가옥 소재지는 대개 景福宮 남쪽, 즉 지금의 서린동 부근이었다. 특히 이 지역 서린방이나 장통방에는 100칸을 넘는 가옥들도 여러채가 있었다 한다. 김동욱, 1994 「조선후기 서울의 도시·건축」 『서울학연구』 창간호, 135-6쪽.

23) 京城府, 1934 앞의 책, 416쪽.

24) 양보경, 1994 「서울의 공간확대와 시민의 삶」 『서울학연구』 창간호, 54-55쪽 참조. 이 때의 인구 증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경기도 일대의 주민이 서울과 그 인접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었음은 명백하다.

발전에 따른 농촌내 과잉인구의 출현, 군제(軍制) 정비에 따른 도성내 상비병의 증가, 서울을 정점으로 한 국내 교역망의 확대 등이 서울 인구 증가의 직접적 배경이었다.

도성안으로의 진입절차가 까다로웠던 탓에 인구증가는 일차적으로 경강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²⁵⁾ 성안 인구도 적지 않게 증가했다. 번상병제가 상비군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군인과 그 가족이 새로 성내외에 거주지역을 마련하였으며, 관영 수공업 체제가 무너지고 사장(私匠)에 의한 상업적 수공업이 확대되면서, 시전 주변에 생산 배후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²⁶⁾ 새로 서울에 유입된 인구가 성내에 거주지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천변(川邊)이 일차적으로 주목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숙종대에 천변(川邊) 인근 도로를 침범하여 집을 지은 인가가 500여호로 조사된 바 있었는데,²⁷⁾ 이 수치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천변(川邊)이 안정적인 거주공간이었다면 천변 거주가 문제될 리는 없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천변(川邊)은 도성내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공간이었다. 새로 들어온 인구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천변(川邊)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서울이 지닌 문제점이었고, 이 문제점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국가는 그들을 추방하기 보다는 그들의 거주공간을 안정화하는 쪽을 택했다.

(2) 준천(漣川)

태종대의 개천(開川)과 세종대의 소규모 준천 이후 청계천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 개천의 관리는 한성부와 공조의 관할이었고,²⁸⁾ 두 부서의 책임하에 간간이 승려(僧侶)들이나 방민(坊民)을 동원한 준천이 없지는 않았지

25) 서울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는 한성부에서 立案을 받아 택지를 부여받고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양보경, 앞의 글, 56쪽.

26) 조선 전기의 관영 수공업 체제 하에서 생산지는 곧 官衙가 존재하는 곳이었다. 軍器寺, 軍資監, 濟用監 등의 관아는 곧 수공업 작업장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匠人들은 官衙를 벗어나 市廳에 종속되어 생산하거나 아니면 직접 市廳을 설립하고 생산과 판매를 병행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27) 『肅宗實錄』 卷 34, 肅宗 26년 6월 5일 丙寅

28) 염정섭, 1998 「조선 후기 한성부 준천의 시행」 『서울학연구』 11, 85쪽.

만, 대규모 준천은 행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영조년간에 들어와서는 준천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서울의 인구 증가는 하수량 자체를 늘렸고, 또 백악과 남산 일대의 수목(樹木)이 땀감용으로 남벌되고 일부가 경지로 개간됨으로써 토사의 유입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²⁹⁾ 심지어 경복궁 남쪽 담장 바깥에는 채전(菜田)이 들어섰을 정도였다.³⁰⁾ 또 동대문 밖 일대가 농경지로 새로 개간됨으로써 수로가 막혀 배수(排水)에도 문제가 생겼다. 그리하여 영조 연간에는 하상(河床)이 평지와 같은 높이가 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가난한 자들이 시체를 함부로 내다 버리거나, 다리밑에서 자던 거지가 그대로 죽어 버리는 일까지 있어 비만 오면 해골이 드러나고 오물이 길에 흘러 넘치는 현상이 거듭되었다.³¹⁾ 더욱이 17세기 ‘소빙기 재해’로 인한 홍수도 빈발했다. 1400년 이후 460년간 한성부 일대의 홍수는 총 172회였다고 하는데, 그 중 57회가 1651-1700년 사이에 집중되었다.³²⁾ 이러한 연속적인 재난을 방지하는 방법은 당시로서는 개천의 준설밖에는 없었다.

영조는 신료(臣僚)와 방민(坊民)들에게 수십차례 준천 여부를 묻고난 후 드디어 1760년(영조 36) 2월, 방민 15만, 고정(雇丁) 5만, 합 20만의 인원과 전(錢) 35,000민(緡), 미(米) 2,300석을 투입하여 57일간의 대역사를 시작했다.³³⁾ 공사에는 도성 주민 1만여명이 자원하여 참여했다.³⁴⁾ 이는 실로 국초(國初)의 도성 축조, 궁궐 영건, 공랑 건설 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역사였고, 영조가 후일 자신의 3대 치적을 탕평(蕩平), 균역(均役), 준천(濬川)이라 했을 정도로 영조 회심의 사업이었다.³⁵⁾ 준천공사가 마무리되자 영조는 스스로 세손(世孫)을 데리고 나가 “뜻이 있으면 일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무릇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뜻을 세우고 힘써야 할 것이다(有志者事竟成 凡欲有爲 當先立志勉之哉)”라 하면서 기뻐하였다.³⁶⁾

29) 『英祖實錄』 卷91 34년 5월 2일 丁亥.

30) 『英祖實錄』 卷95, 36년 4월 1일 乙亥.

31) 京城府, 1934 앞의 책, 404쪽.

32) 김연옥, 1987 「조선시대의 기후환경」 『지리하는총』 14, 416쪽.

33) 『英祖實錄』 卷94, 35년 10월 19일 丙午.

34) 『英祖實錄』 卷94, 35년 10월 23일 庚子.

35) “선대왕의 사업과 실적은 곧 均役, 蕩平, 濬川이다.” 『正祖實錄』 卷1, 元年 5월 16일 丙戌.

36) 京城府, 1934 앞의 책 406쪽.

준천사업은 하천을 준설하는 동시에 수로를 직선으로 변경하고, 나아가 국초의 개천사업 당시 손을 대지 못했던 구간에 석축을 쌓는 형태로 진행되었다.³⁷⁾ 그리하여 1773(영조 49)년에는 개천 양안이 전부 석축으로 개축되었다.³⁸⁾ 또 이 때에는 각 지류(支流)의 준설도 병행되어 개천의 범람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었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개천의 범람으로 인한 위해가 완전히 소멸될 수는 없었다. 토사와 오물의 유입을 차단할 수 없는 한 준천은 연례적으로 시행되어야 했다. 준천을 전담하는 기구로 준천사(濬川司)가 설치되었고, 준천의 기준점으로 수표교에 수위가 표시되었다. 이후 준천은 정부의 재정 곤란 속에서도 2-3년마다 한번씩 정례적으로 실시되어 1908년까지 지속되었다.³⁹⁾

(3) 천변(川邊)

영조는 준천이 끝나자마자 천변 곳곳을 택지로 만들었다. 천변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준천을 위한 방역(坊役)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영조대 이후의 준천은 군문(軍門)의 병사들과 방민(坊民)의 방역(坊役), 그리고 고가모립(雇價募立)한 역부(役夫)에 의해 이루어졌다. 천변에 새로 거주지를 마련한 사람들에게는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⁴⁰⁾

준천이 지속적으 이루어짐으로써 천변은 비교적 안정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천변 북안에는 시전의 생산 배후지로서 수공업 작업장들이 속속 자리잡았다. 대광통고 좌측, 지금의 서린동 주변에는 금방(金房), 은방(銀房), 옥방(玉房)이 집중하였으며, 이엄장(耳掩匠)도 이

37) “영조 27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都城圖에는 청계천은 河水의 자연스런 흐름에 따라 다소의 曲折이 표시되어 있다. 공사 후의 각 지도는 거의 직선화된 것을 보면 석축 때 그를 직선으로 바로잡았을 것이다. 또 현재의 兩岸은 1923년 준설 확장 때에 축조한 것인데, 그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곳곳에서 床石이 沈設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사자들이 놀란 일이 있는데, 이는 영조 49년, 또는 그 후에 濬川司 및 각군문에서 沈設한 것으로 보인다.” 京城府, 1934 앞의 책, 40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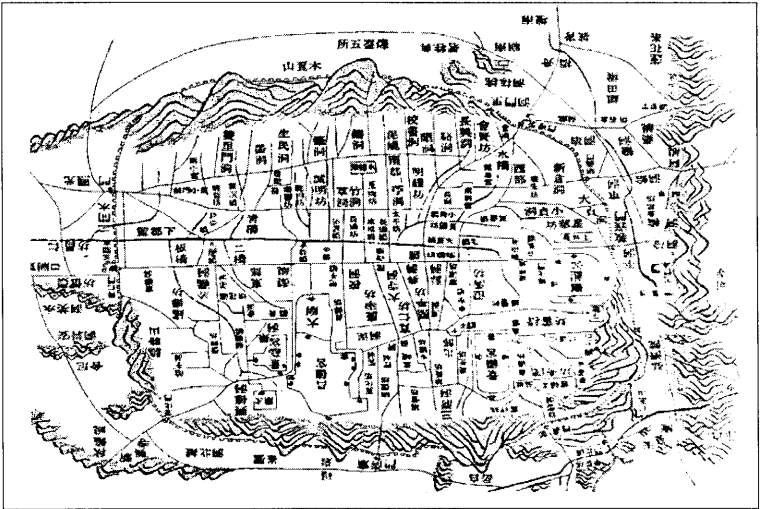
38) 京城府, 1934 앞의 책 406쪽.

39) “英廟朝 때에 크게 준천한 이후로 혹은 간년으로 혹은 2, 3년 간격으로 疏濬에 힘을 쓰지 아니한 것은 아 니나...” 『純祖實錄』 卷32, 32년 8월 13일 丁亥. 영조대 이후의 준천에 대해서는 열정섭, 앞의 글 참조.

40) 조선후기에는 市廳에 禁亂塵權이 부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생계 대책을 세우는 데에는 충분했다. 英祖가 이 때 새로 택지로 설정한 곳은 於義洞이었다. 『英祖實錄』 卷95, 36년 6월 21일 癸巳.

일대에 자리잡았다. 또 대광통교와 소광통교 사이에는 두석방(豆錫房)이, 관철동에는 관자(貫子) 제조장과 신발 제조장이, 철물교 주변에는 철물제조장이, 광통교 북쪽 무교동 일대에는 가구장(家具匠)이 집거(集居)했다.⁴¹⁾ 구리개 부근, 현재 을지로 입구 앞쪽에는 이 무렵부터 약방들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하였고,⁴²⁾ 대광통교 서남쪽 친변에는 서화사(書畫肆:冊肆)가 집중했다.⁴³⁾

〈그림 3〉 1900년경의 한성부 지도.



또 청계천 북안 청진동과 장교, 수표교 부근에는 다수의 중인 계층이 거주하고 있었고,⁴⁴⁾ 그들은 이 일대를 스스로 '위항(委巷)' 또는 '여항(閭巷)'이라 불렀다.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동을 반영하여 이 일대에는 다수의 거택(居宅)이 들어서기도 했다.⁴⁵⁾ 청계천 남쪽 배오개 주변에는 군졸이 다수 거

41) 한말의 외국인들은 지금의 무교동 일대를 Cabinet Street라 불렀다. 청계천 일대에 가내공업 성격의 공장이 입지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姜佑源, 1997 「서울 都心部 製造業 立地에 대한 歷史的 考察」 『郷土서울』 56, 161-2쪽 참조.

42) 李佑成·林焱澤, 1973 『李朝漢文短篇集』 中, 一潮閣 중 「銅峴藥局」, 189쪽.

43) 조선 후기 藥房과 冊肆의 분포는 일제 강점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44) 李惠恩, 1993 「日帝侵略期 서울의 民族別 居住地分布」 『郷土서울』 53, 109쪽. 中人이라는 말은 서울의 中村, 즉 청계천변에 밀집하여 거주한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었다.

45) 李佑成·林焱澤, 1973 『李朝漢文短篇集』 上, 一潮閣 中 「長橋之會」, 174쪽.

주하였고, 이들과 그 가족만으로 따로 장용영계(壯勇營契)가 만들어지기도 했다.⁴⁶⁾

청계천 위에 놓인 다리들은 여가 공간으로도 기능했다. 조선 후기 언문 소설책 읽기로 유명하였던 전기수는 주로 청계천 다리 위에 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모아 놓고 글을 읽었다.⁴⁷⁾ 또 임희지(林熙之)라는 역관(譯官)은 눈 내리는 날이면 청계천 제5교(동대문에서 종로쪽 다섯번째 다리) 위에서 생(笙)을 불곤 했다고 한다.⁴⁸⁾

그러나 천변의 안정화는 대략 수표교를 경계로 하여 그 서쪽 일대에 그쳤다. 동쪽 지역은 민가가 자리잡기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준천으로 퍼낸 토사와 오물을 오간수문 옆 지금의 방산동 일대에 쌓아 놓음으로써(가산(假山) 또는 조산(造山)) 이 일대의 환경이 오히려 악화되었다.⁴⁹⁾ 가산에는 빈민, 거지들의 토굴이 자리잡았다. 본래 개천 다리 밑은 일찍부터 거지들의 자리였다. 포도청에서는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두목을 선정하도록 하였는데, 거지의 총두목인 꼭지만이 바로 이 가산에서 선출되었다.⁵⁰⁾ 광고, 수표교 등 석교(石橋) 아래는 거지들의 훌륭한 주거지 구실을 했다.⁵¹⁾ 특히 오간수문 밖은 인가도 드물어 '도깨비들이 노는 곳'으로 묘사되기도 했다.⁵²⁾ 심지어 고종 대에도 천주교도를 처형한 후 그 시체를 청계천에 내다 버려 효교(孝橋 ; 지금의 청계천 4가 부근에 있던 다리)에서 수구문까지가 붉게 물들었다고 한다.⁵³⁾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계천변 동쪽 일대는 19세기초까지도 방(坊)이 형성되지 않은 구역이 대부분이었다.

46) 『日省錄』 正祖 20년 12월 22일 癸巳.

47) 李佑成·林煥澤, 1973 『李朝漢文短篇集』 中, 一潮閣 중 「秋齋紀異」, 335쪽.

48) 같은 책, 343쪽.

49) 京城府, 1934 앞의 책, 405쪽 ; 假산에 대해서는 동쪽이 허전한 지형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러 쌓았다는 주장도 있다. 『漢京識略』

50) 이들 거지들에게는 뱀을 잡아 파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뱀잡이가 땅꾼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들이 造산에 땅굴을 파고 살았기 허물어졌다. 이경재, 1993 『서울 정도 600년』 2, 서울신문사, 280쪽.

51) 李佑成·林煥澤, 1973 『李朝漢文短篇集』 下, 一潮閣 중 「廣文者傳」 270쪽.

3. 일제 강점기의 청계천(淸溪川)과 천변(川邊)

1) 개항 이후 외국인의 침투와 개천

서울에 외국인의 상시(常時) 거주가 허용된 것은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의 일이었다. 청(淸)과 조선의 특수한 관계에 기초하여 허용된 청상의 한성개잔권(漢城開棧權)은 최혜국조관(最惠國條款)을 내세운 일본과 서구 각국에도 균점(均霑)되었다. 1884년 조영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하여 청상(淸商)과 일상(日商), 그리고 구미인 선교사와 상인들이 속속 도성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외국인들의 도성 거주가 허용되기는 했지만 그들의 거주 지역은 궁궐을 기준으로 할 때 개천 바깥쪽으로 한정되었다.⁵⁴⁾ 개천 남단에는 먼저 중국인들이 등지를 틀었다. 1882년 임오군인폭동 진압을 위해 출병한 청군(淸軍)은 먼저 남별궁(南別宮 : 지금의 조선호텔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가, 곧 현 롯데호텔 위치에 있던 이경하(李景夏)의 집으로 옮겼다. 을지로 입구는 원세개(袁世凱)의 진(陣) 앞이라 하여 원대인 진전(陣前)이라 불렸다. 청국 주둔군을 배경으로 청국 상인들이 그 북쪽 일대에 자리잡았다. 중국 상인의 수장격인 동순태(同順泰)는 수표교 남단에 자리를 잡았고, 먼저 그 주변이 중국인 상가로 변했다.⁵⁵⁾ 도래(渡來) 중국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인 집거지는 계속 확대되어 소공동과 서소문에도 각각 중국인 상가가 형성되었다.

서대문밖에 있던 공사관을 군인폭동으로 인해 잃은 일본은, 1882년 교동에 공사관을 마련했다가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는 중국인 집거지 남쪽, 남산 기슭 왜장대(倭將臺 : 현 예장동)에 새 근거지를 마련했다. 그 때부터 일본 상인들이 남대문로 일대를 점거한 1895년경까지, 일본인들은 개천을 넘기 위

52) 李右成·林炎澤, 1973 『李朝漢文短篇集』 中, 一潮閣 중 「廉同伊」, 309쪽.

53) 京城府, 1934 앞의 책, 480쪽.

54) 애초 서울 정도 당시부터 서울의 북쪽은 위계가 높은 지역으로서 궁궐과 관아가 집중되어 있었고, 남쪽은 그보다 하위 위계인 평민의 거주지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규목·김한배, 앞의 글 17쪽.

55) 李惠恩, 앞의 글 120쪽.

해 무척이나 애를 썼다. 일본 본국에 순사 파견을 요청하여 무장 경비하에 종로 방면으로 진출하려 했고, 또 일부는 종로 일대에서 노점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종로 상인들의 저항과 중국상인들의 방해로 인해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인들은 궁벽한 곳에 움츠려 있기 때문에 상권을 확대할 수 없다는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다.

청일 양국 상인을 제외한 구미인들은 거의가 정동(貞洞) 주변에 모여 살았다. 조선 정부에서는 개천 서쪽 경운궁(慶運宮) 부지를 떼내어 외국공관 부지로 나누어 주었다. 외세의 침투가 확대되는 속에서 개천은 서울과 서울 상권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였다. 외국인들은 성벽은 넘을 수 있었지만 개천을 넘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정황을 반영하여 1895년에는 한성내 외국인 거류지를 따로 청계천 밖에 설정하려는 계획이 마련되기도 했다.⁵⁶⁾

청일 양국 상인의 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종로를 중심으로 한 청계천 이북 지역은 과거의 위상을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1897년, 전차가 종로 한복판을 가로질러 놓임으로써 한인 거리의 위상은 한층 강화되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협소하고 더러운 곳은 일본인과 중국인이 사는 거리였지, 한인(韓人)이 사는 거리는 아니었다.

개항기 외국인들에게 개천은 흥미로운 대상이었다. 1880년대초 서울을 찾은 어떤 미국 선교사는 참으로 훌륭한 하수도라고 찬탄했다.⁵⁷⁾ 반면 10여년 후 서울에 온 비숍은 서울이 북경 다음으로 더럽고 냄새나는 도시라고 경멸에 찬 연사를 퍼부었다.⁵⁸⁾ 그 원인이 개천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개항 이후에도 준천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영조 때 이미 준천은 민(民)을 생각하는 왕정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천은 선대왕의 유업을 잇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대원군 집정기 준천사(濬川司)가 폐지된 이후에는 한동안 한성부와 별령(別營)이 임시로 준천의 책임을 지고 있다

56) 왕현종, 1998 「대한제국기 한성부의 토지·가옥조사와 외국인 토지침탈 대책」 『서울학연구』 10, 11쪽.

57) "예전에 넓은 하수도가 만들어졌었던 분명한 증거가 있다. 시가의 중앙을 관통해서 뚜껑없는 개천이 있는데 6척에서부터 35척 넓이로 양쪽에 담을 쌓아 울리고 깊이는 4척 가량이 되는(지금은 모래와 쓰레기로 막혔지만) 것이 시가의 간선 하수도다. 이 속으로 전시(全市)의 모든 작은 개천이 쏟아져 들어와서 잠마철에는 이것을 통해서 전시(全市)의 배수가 되는 것이다. 도시 설계의 설명도를 보면, 배수제도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좋은 배려 밑에서 이 수도(首都)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졌던 것을 손쉽게 알 수 있다." 조요지·W. 길모어, 趙容萬 譯, 1958 「수도(首都)서울」 『郷土서울』 2, 229쪽.

가,⁵⁹⁾ 갑오개혁 이후 정식으로 한성부에 준천기능이 이관되었다.⁶⁰⁾ 1897년에는 마차회사(馬車會社)가 설립되어 준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⁶¹⁾ 대한제국기의 마지막 준천은 1908년 한성부의 주관하에 한성부, 내부 토목국 합동으로 시행되었다.⁶²⁾

2) 일제 강점기의 청계천과 천변, 그 상징성

(1) 차별의 상징(象徵)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서울은 일본 주둔군의 계엄통치하에 들어갔다. 일본인의 서울 이주는 이후 급속히 확대되었다. 서울 거주 일본인은 매년 수천명씩 늘어갔다. 1903년 3,865명이던 서울과 용산 거주 일본인은 1910년 군인을 제외하고도 47,148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⁶³⁾ 이들의 거주지역이 예장동, 충무로 일대에서 남대문으로, 다시 수표교 남단, 구 중국인 거주지역인 현 을지로 일대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그 뿐, 일본인들은 여전히 개천을 넘지 못했고 넘으려 들지도 않았다.

일본인들은 군대의 위력을 배경으로 한인의 토지 가옥을 빼앗다시피하여 거주지역을 확대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거주지에 마음대로 일본식 지명을 붙였다. 혼마치(本町), 메이지마치(明治町), 하세가와마치(長谷川町), 신마치(新町) 등이 차례로 생겨났다. 그리하여 강점 직후 지명개정과정에서 청계천 이남은 모두 정(町)으로, 이북은 모두 동(洞)으로 지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⁶⁴⁾

58)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인화 옮김, 199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52쪽. 그녀의 첫 서울 방문기에서 청계천을 묘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의 또 다른 특징적인 풍물 중의 하나는 하천 혹은 시내의 수로 시설이다. 널찍하고, 제방이 있으며 복개되지 않은 서울의 수로들에는 거무칙칙하게 부패되어 가는 시냇물이 악취를 풍기는 천변을 따라 흐르고 있다. 천변은 한 때 河床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범람한 퇴비와 쓰레기 더미들로 뒤덮여 있다." 같은 책, 60쪽.

59) 京城府, 1934 앞의 책 408쪽.

60) 京城府, 1934 앞의 책 397쪽.

61) 『馬車會社經營會計冊』(奎27543-1~8).

62) 京城府, 1934 앞의 책, 430-1쪽.

63) 京城日本人商業會議所, 1918 『月報』 23

64) 長野末喜, 앞의 책 377쪽.

일본은 과거 청계천을 계선으로 구분되었던 지역간 위상을 역전시켜 나갔다. 도시기반 시설 정비를 위한 모든 재원이 청계천 이남에 집중되었다. 시구 개정에 따른 도로확장은 청계천 이남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새로운 건물도 이 일대에 세워졌다.⁶⁵⁾ 일한와사회사(日韓瓦斯會社：京城電氣株式會社)가 장악한 전차선은 청계천 이남으로 확장되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선은(鮮銀)앞 광장(지금의 한국은행 앞 광장)으로 이동했다. 이는 야만의 조선과 문명의 일본을 같은 서울 하늘 아래 극명히 대비시킴으로써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상징조작의 일환이었다.⁶⁶⁾ 이제 청계천은 야만의 북촌과, 문명의 남촌간의 대치선이 되었다.

오늘날 당국의 방침이라는 것 보다도 실행 광경을 살펴보면 40만 부민(府民)의 주머니 돈을 모아다 그 시설이 대부분은 본정 일대에 큰 힘을 빼앗기고 마는 터이라. 북부 일대는 아직도 원시시대의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 있지마는 본정 일대는 길에 밥이 떨어져도 주워먹게 되었다.⁶⁷⁾

1908년 대한제국 정부에 의한 마지막 준설이 시행된 후, 1918년까지 10여년간 준천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일제는 청계천을 악의적으로 방치했다. 일제가 청계천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조선 지배의 중추를 과거 조선과 대한제국의 중심부로 이전할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부터였다. 1915년 시정 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를 빌미로 하여 경복궁 전각 대부분을 헐어버린 일제는, 총독부를 이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그와 함께 선은(鮮銀)앞 광장에 있던 경성부 청사도 경운궁 앞으로 옮기고자 했다. 조선내 일본인의 총독부, 서울 거주 일본인의 경성부를 조선의 총

65) 참고로 일본인들이 다수 거주하였던 南驛의 경우 1899년 당시 瓦家は 22.2%에 불과하였으나 러일전쟁 직전인 1903년에 이미 瓦家の 비중이 50-80%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조성운, 1992 「조선후기 서울 주민의 신분구조와 그 변화」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45-7쪽 참조. 일제초기 시구개정사업에 대해서는 金基虎, 1995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서울학연구』 6 참조.

66) 전우용, 1999 「대한제국기-일제초기 서울 공간의 변화와 권력의 지향」 『전농사론』 5 참조. 같은 도시내에 야만과 문명을 극명히 대비시키는 것은 식민지 도시계획의 전형적 수법이 아니었을까? 元山 역시 赤田川이라는 하천을 경계로 일본인 집거지역과 조선인 지역이 나뉘었으며, 이러한 구분은 租界가 설치되었던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였다.

67) 『조선일보』, 1927. 11. 16.

독부, 서울의 경성부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는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1918년 25만여원의 경비를 들여 비로소 준천에 착수한 것은 '경성'의 하수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능적 의미 외에 조선지배의 증추가 들어설 자리를 미리 정비해 둔다는 의미도 갖는 것이었다.⁶⁸⁾ 이후 청계천 준설공사는 수시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준설의 중점은 일본인 거주지인 남산 기슭의 세천(細川), 지류(支流)에 놓여 있었다.

차별은 특히 도로개수문제에서 심했다. 국초부터 청계천 양안 제방은 도로로도 사용되었다. 이 도로는 일제 강점기까지도 전혀 확장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천변에 인가가 밀집하면서, 또 자전거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출현하면서 천변 뚝방도로는 '살인도로'의 별명을 갖게 되었다. 놀던 아이들이 떨어지고 취객이 떨어졌으며,⁶⁹⁾ 자전거를 탄 전보배달부가 떨어졌다.⁷⁰⁾ 해마다 겨울이면 미끄러져 추락사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경성부협회의의 조선인 의원들조차 도로개수를 지속적으로 청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⁷¹⁾ 그러나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의 생활조건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는 없었다. '남촌 도로는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어도 좋을 만큼 깨끗하지만, 북촌 도로는 발을 딛기 어려울만큼 더럽다'는 술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끗하게 일본인 거주지 일대의 도로정비에만 매달렸다.

부민(府民)은 이(청계천 도로)를 살인도(殺人道)라고까지 하여 적지 아니한 혐위(脅威)를 느끼고 있다. 부근 주민은 부 당국자에게 개수(改修)를 요망한지도 이미 오래이며 매년 개최되는 부협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건의로 해마다 적지 아니한 풍파를 일으키어 왔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이 부 당국자들은 오직 예산관계라는 이유 아래 소위 추락(墜落) 방지책이라 하여 다섯칸에도 한 개, 혹은 열 칸에 한 개씩의 말뚝을 세웠다. 그러나 그것은 유명무실로 공연한 비용만 들이는 것이요 사고는 의연히 일어나고 있어... 이와 같은 반면에는 용산, 한강동의 도로와 같이 오직 비가 오면 질어서 사람이 괴로워 다닐 수 없다는 이유 아래 4만원의 예

68) 京城府, 1934 앞의 책, 544쪽 ; 『每日申報』 1918. 12. 16.

69) 『每日申報』 1926. 3. 5. 「위험한 청계천변도 예산이 없어서」 ; 『朝鮮日報』 1927. 4. 2 「살인천인 청계천」

70) 『朝鮮日報』 1924. 11. 26 「전보배달부가 청계천에 낙상」

71) 『每日申報』 1931. 3. 12. 「청계천 도로문제로 협의회 風波難免」 ; 『朝鮮日報』 1934. 3. 16 「북촌시설 중 긴급한 청계천 改修 奈何」

산을 들어 금년도에 개수를 하기로 했다 한다. 그리하여 부민간에는 양자의 경중과 그 시급을 생각하여 부 당국자의 처사가 불공평한 것을 비난하는 동시에 부협 의원 간에도 이에 대한 불평이 높아 이번에 열리는 협의회에서는 청계천 문제로 일대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관측된다.⁷²⁾

심지어 1936년에는 남산 순환도로를 만들기 위해 75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기채(起債)를 하면서도 청계천 도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부협의회에서 '남산 주회도로 같은 긴급치도 않은 것을 하면서 저 청계천은 어찌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할 해결책을 취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⁷³⁾ 겨우 1937년에 가서야 청계천 복개와 도로개수공사가 시작되었지만, 그나마 도로개수는 자재난을 이유로 1938년에 중단되어 버렸다. 반면 남산 우회도로 공사는 자재난에 관계없이 계속 시행되었다. 일본인들도 조선인들도, 이것이 민족적 차별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었다. 일시동인(一視同仁), 내선일체(內鮮一體)를 표방하면서도 그들 스스로 차별의 상정을 키워내고 있었던 것이다.

(2) 불결과 재난의 상징(象徵)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고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면서 조선의 농촌 과잉인구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농촌에서 유린된 농민들의 일부는 일본과 만주로 유랑의 길을 떠났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밀려들었다. 서울로 몰려든 농촌출신 노동자, 빈민들은 우선 성밖 각처에 새 거처를 마련했다. 남대문밖 남산 서쪽 기슭과 지금의 청파동 주변, 동대문 옆 방산정 — 옛 조산(造山) 일대 — 과 그 동쪽 왕십리 일대는 당시의 대표적인 빈민 밀집지대였다. 1920년대 중반에는 토막(土幕)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천변 제방에도 무허가 임시 건물이 빼곡이 들어찼다.⁷⁴⁾ 동대문 주변 천변에는 군데군데 텃밭도 만들어졌다. 그럴

72) 『매일신보』, 1931. 3. 12

73) 『每日申報』, 1938. 3. 29 「의원의 불충실 痛擊, 살인로 청계천 개수증지는 유감」

74) 『朝鮮日報』, 1927. 6. 24 「청계천 제방상 30호에 철거명령」

수륙 천변 주민의 생활조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내내 10여만의 인구를 포용하는데 머물렀던 도성안에서 신규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은 청계천변 뿐이었다. 천변은 이육고 서울의 대표적 인구 밀집지대로 부상했다. <표1>,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변의 거주 인구는 서울 평균을 두 배 이상 상회하였고, 특히 광교 - 수표교 구간 남측변의 인구밀도는 살인적이었다. 조선 후기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이 역으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뒤바뀌었다. 특히 무교정은 서울 시내 최고의 인구밀도를 '자랑'했다.

<표 1> 청계천변 일대의 인구밀도 상대비

	서울 평균	청계천 이북	청계천 이남
1,000평당 인구수	70명	138.3명	199.2명

* '청계천 이북'은 청계천 이북, 종로 이남의 昌信洞, 觀水洞, 禮智洞, 瑞麟洞, 貫鐵洞, 長沙洞의 6개동을, '청계천 이남'은 청계천 이남, 을지로 이북의 長橋町, 舟橋町, 三角町, 水下町, 茶屋町, 水標町, 光熙町, 林町, 笠井町, 芳山町, 武橋町 11개 町을 대상으로 함.

* 자료 : 京城府, 1928 『京城都市計劃調查書』 72-88쪽.

<표 2> 청계천변 町洞의 인구밀도별 순위

청계천 이북	長沙洞(182), 貫鐵洞(161), 瑞麟洞(145), 禮智洞(144), 觀水洞(136), 昌信洞(62)
청계천 이남	武橋町(430), 芳山町(252), 笠井町(239), 光熙町2丁目(222), 林町(221), 光熙町1丁目(164), 水標町(154), 茶屋町(150), 水下町(150), 三角町(149), 舟橋町(136), 長橋町(123)

* 자료 : 위와 같음.

천변에서 특히 심각했던 것은 위생문제였다. 일본인 거주지역에는 상하수도, 도로, 주택 등이 비교적 완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촌 조선인 거주지역, 특히 천변 일대의 시설은 엉망이었다. 청계천은 일본인에게 단순한 하수도였지만, 조선인에게는 여전히 빨래터요 야채 세척장이기도 했다. 이 지역에는 계속 물장수가 돌아 다녔고, 아낙네들은 빨래감을 청계천까지 들고 나왔다. 동대문의 채소장수들은 오간수문 옆에서 버젓이 야채를 씻어다 팔았다. 1927

년 현재 서울의 건물 총수 41,809채 중 20평 미만의 건물이 29,059채였고 이들 건물은 거의 전부가 조선인 민가였다. 그나마 이 정도 규모의 건물에서 너 세대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장마가 지면 침수되는 가옥이 부지기수였고, 전염병이 돌면 바로 전시가를 휩쓸었다.⁷⁵⁾ 서울은 일본 제국주의 판도내에서뿐 아니라 조선 전역에서도 전염병 사망률 제1위였다.⁷⁶⁾ 그 원인은 물론 청계천에 있었다. 집중호우라도 내리면 청계천 하수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바로 역류했다.⁷⁷⁾ 일제 당국의 조사에 의하더라도 서울 주민의 사망률은 청계천에 가까운 곳에 거주할수록 높았다.⁷⁸⁾ 그러나 이에 대한 일제의 대책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청계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비하는 식이었다. 일제의 전염병 대책은 청계천에서 야채를 씻는 사람을 엄벌에 처하거나,⁷⁹⁾ 천변의 소재(蔬菜) 재배를 금지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⁸⁰⁾

천변은 치안의 사각지대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애나 일제 강점기에나 천변은 우범지대였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 지금의 청계천 3가 이서지역에는 적지 않아 중산층이라 할만한 사람들의 거주지도 형성되었지만, 그래도 다방골, 관철동, 수포동 일대에는 기생집이 밀집해 있었고 그 동쪽으로는 빈민촌이 형성되었다. 박태원이 서울 빈민의 일상을 그리기 위해 천변을 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일제 강점기의 한인 거주지역에 대한 치안은 서비스가 아니라 폭압이었다. 독립운동 관계자를 검거하는 데에는 천재적인 소질을 발휘했던 일본 경찰도, 사적인 폭력이나 살인 사건 처리에는 무능하고 부패하기

75) 『朝鮮日報』 1936. 6. 12 「暴陽下の 清溪川은 傳染病의 培養地」

76) 1927년경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는 일본 각도시가 18-21인이었음에 비해 서울은 불철저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30인이자 되었다. 더욱이 이를 민족별로 세분하면 일본인이 25인, 외국인인 9인으로 각각 본국 수준의 사망자수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조선인은 31인이었다. 『조선일보』 1927. 12. 2. 대략 10년 후인 1935년에는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이 해 일본 도시 중 전염병 환자 발생률 1위인 大阪의 2배에 달하는 罹病率을 보여 「전염병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朝鮮日報』 1935. 9. 4. 「暗渠없는 청계천은 絶好한 培養 溫床」

77) 『朝鮮日報』 1924. 10. 4. : 『朝鮮日報』 1930. 3. 28 「청계천이 오염천화」

78) 『朝鮮日報』 1938. 3. 1 「청계천변 거주자는 사망률이 높다」

79) 『每日申報』 1935. 8. 28 「청계천 불결수 사용 당국 철저히 취제」; 『朝鮮日報』 1935. 9. 4. 「汚水疎菜洗滌者 東門署 150名 檢舉」; 『每日申報』 1937. 2. 18 「분노운하인 청계천에 야채세척 절대엄금」; 『朝鮮日報』 1937. 3. 11 「府에서 청원순사. 청계천 위생취제」, 同 1937. 5. 9 「청원순사를 두어 청계천 업종 단속」; 『朝鮮日報』 1937. 7. 29 「청계천에서 세척하는 惡菜蔬商 嚴罰」

짜이 없었다. 청계천에서는 수시로 변사체가 발견되었다.⁸¹⁾

(3) 복개문제

도심 한복판을 흐르면서 경관면에서나 위생면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던 개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개'였다. 도시민의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리고 위생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전반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개천에 깨끗한 물이 흐르기를 바랄 수는 없었다. 개천을 복개하려는 최초의 계획이 수립된 것은 대한제국기의 일이었다. 1895년 내부령 제9호로 종로 가가의 철거와 도로확장계획이 발표되었고, 곧 종로에 전차부설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때 철거된 종로가가 상인들이 구 선혜청 미창(米倉) 자리로 옮겨가 이곳을 상설시장으로 만들었는데(남대문시장),⁸²⁾ 1905년 통감부는 이들을 강제로 내몰려는 방침을 세웠던 것 같다. 본정의 일본인 거주지, 상권을 남대문 방면으로 확장하는 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방침은 송병준(宋秉駿) 등의 교섭에 의해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남대문시장 철거 방침이 수립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한인 관료, 기업가들이 이들 상인을 모아 개천 위에 새로운 시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즉 광교 - 장교 구간을 복개하고 그 위에 점포를 설치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그에 따라 시장 이름도 광교와 장교의 머리글자를 따서 광장시장(廣長市場)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하고 결국 광장시장은 이현(梨峴)으로 옮겨가 광장시장(廣藏市場)이 되었다.

1909년에는 황토현 절개공사로 얻어진 토사를 이용하여 황토현 구간 일부를 메운 일이 있었지만, 이것이 청계천의 본격적인 복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⁸³⁾ 다만 소규모의 지류를 암거화하는 작업은 부분적으로나마 진행되어 1935년까지는 도성 지역의 지천 중 상당 부분이 자취를 감추었다.⁸⁴⁾ 청계천

80) 『每日申報』 1935. 11. 8 「청계천 유역 개관에 소채 재배를 금지」

81) 『每日申報』 1922. 2. 8 「청계천변에 타살사체」; 同 1925. 12. 9. 「청계천 하류에 소년의 참살사」

82) 남대문시장의 형성경위에 대해서는 전우용, 1999 「대한제국기-일제초기 선혜청 참내장의 형성과 전개」 『서울학연구』 12 참조.

83) 京城府, 1934 『京城府史』 1, 429쪽.

을 복개하여 그 터를 이용하려는 계획은 1926년에도 수립된 바 있었다. 예종석(芮宗錫)을 비롯한 한일 양국 자본가들이 주식회사 순목회(淳睦會)를 설립하고 공동발기한 이 계획은 대광교에서 주교정(舟橋町)까지를 철근 콘크리트로 덮어서 1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 곳에 택지와 상가, 위락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이었다.⁸⁵⁾ 1926년은 조선총독부 청사와 경성부 청사가 각각 완공된 시점이었다. 이제 조선지배를 위한 일본의 증추시설이 과거 한인의 중심지로 이전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종석은 이 계획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경성의 중앙을 꿰어 흐르는 청계천은 우연히 내지인(內地人) 시가와 조선인 시가를 남북촌으로 구분하게 되었고 또 지명도 청계천 한편인 내지인촌은 대개 무슨 정(町)이 되고 조선인촌은 무슨 동(洞)이 되어 지리상으로 일선인 차별이 된 것처럼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일선융화를 부르짖는 오늘날에 있어서 좋지 못한 현상이라는 것으로 요즈음 그 구획을 파괴할 것과 또는 인구가 세계에 제일위로 조밀한 경성부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⁸⁶⁾

그러나 이 계획은 청계천을 복개할 경우 홍수시에 배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당국에 의해 기각되었다.⁸⁷⁾

청계천 처리문제가 본격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1931년 이후 일제가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조선을 대륙병참기지로 설정하고, 京城을 그 중심에 놓으면서부터였다. 이른바 '대경성계획'이라는 것이었는데, 1934년의 시가지계획령을 계기로 서울의 전반적 개조에 대한 구상이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청계천의 전면 복개구상은 1935년에 최초로 발표되었다. 당시 경성부의 마치다(町田) 토목과장은 청계천을 전면 복개하여 도로로 하고 그 위로 고가

84) 박문호 외, 앞의 글, 112-3쪽.

85) 『朝鮮日報』 1926. 8. 20 「청계천을 덮어서 만평의 주택지들」; 『每日申報』 1926. 8. 22. 「청계천을 암거로, 내선인의 환락향」

86) 『매일신보』 1926. 8. 22.

87) 『每日申報』 1928. 3. 13 「소화3년도 경성부의 살림살이」

철도를 놓는 구상을 발표했다.⁸⁸⁾ 대경성계획으로 영등포를 비롯한 1군 8면이 새로 경성에 편입될 경우 당시의 시설만으로는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민간의 교통수요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군부의 교통수요였다. 용산, 영등포의 공업지대에서 생산되는 군수물자를 만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서는 경성-의주간, 또는 경성 - 원산간 도로와 철도의 보완이 필요하였고, 토지수용비가 필요없는 청계천을 새로운 도로, 철도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 구상은 재정문제를 내세운 조선 철도국의 거부로 좌절되었다.

1936년에는 광교와 삼각정 사이를 우선 복개한다는 안이 마련되어 193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광화문우체국 - 삼각정간을 복개하고자 하였다.⁸⁹⁾ 이와 동시에 1939년에는 복개 후의 청계천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만들려는 안이 마련되었다.⁹⁰⁾ 또 1942년부터는 삼각정 이동(以東) 지역의 청계천을 개수(改修)할 계획이 수립되었다.

금후 삼각정(三角町)까지 암거(暗渠)가 완성되는 때에는 제2기 계획으로 삼각 정으로부터 동대문 부근의 오간수다리까지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할 터인데 이로 부터는 청계천의 넓이가 넓어짐으로 암거를 하지 않고 개수를 하여 양편에 12미터의 도로를 만들고 청계천의 더러운 하수는 그 양편의 도로 밑에 하수구를 만들어서 내려가게 하고 노출된 청계천에는 깨끗한 물만이 흘러내리게 하며 양편 도로는 가로수를 심어서 경성부민의 산책도로로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오간수교까지 총경비 500만원을 예산하고 있는데 이 청계천 개수공사가 끝나는 때에는 지금까지 경성부의 두통거리이던 청계천이 그 보건상 또는 위생상의 나쁜 작용을 그치고 오히려 종로통과 황금정의 교통량을 완화하며 비상시에는 피난도로로도 가치가 있게 되고 청결한 시냇가의 거리가 되어 불란서 파리의 세느강처럼 아름다운 시(詩)의 시냇가로 될 것도 멀지 않은 일이라서 경성부민의 이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⁹¹⁾

88) 『每日申報』 1935. 1. 17 「청계천에 고가철도안」

89) 『每日申報』 1936. 10. 9 「清溪川의 暗渠計劃」; 『朝鮮日報』 1936. 11. 27 「태평통서 광교까지 청계천 복개 공사」; 『每日申報』 1937. 5. 26 「청계천이 개수되면 시내의 대간선로」; 『朝鮮日報』 1937. 5. 26 「청계천 暗渠工事 今秋부터 필경 착수」

90) 『朝鮮日報』 1939. 8. 21 「청계천을 덮은 뒤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91) 『조선일보』, 1938. 4. 21 「청계천 개수 따라 산책도로 시설」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서울인구의 비약적 증대는 청계천을 ‘낭만적 공간’으로 만든다는 ‘낭만적 구상’을 용납하지 않았다. 1936년 부역 확장 당시 70만 내외였던 서울의 인구는 불과 4년 뒤인 1940년에는 100만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1940년, 전시 군수물자 운송편의 확대와 방공(防空) 대책을 주안으로 한 경성부의 3대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그것은 첫째, 청계천의 전면복개를 통한 도로면의 확대와 지하철 부설, 둘째, 도심과 한남정(漢南町)을 연결하는 도로의 신설, 셋째, 도심지대의 구획정리사업이었다. 청계천을 복개하고 그 위에 전차궤도를 부설하는 한편, 공습에 대비하여 지하철을 만든다는 이 구상은 당시의 일본 경제력으로는, 더욱이 전쟁으로 인해 가용물자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황당한 것이었지만 어쨌든 이를 위해 일제는 기술자 총동원체제까지 수립하고자 했다.⁹²⁾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청계천 복개는 구상으로만 끝나고 말았다. 그 구상이 실현된 것은 해방되고도 한참 후,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의 일이었다.

4. 맺으며

청계천의 전면 복개안은 1940년 일제가 확정해 놓은 것이었지만, 전쟁에 쫓기던 일본이 그를 완수하리란 불가능했다. 일제가 지배하던 기간 중에 복개된 구간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광통교까지의 구간에 불과했다.⁹³⁾ 도심을 흐르는 청계천의 전면 복개는 1958년부터 4년에 걸쳐 완수되었고,⁹⁴⁾ 1967년에는 동대문밖 하류 구간까지 완전복개되어 청계천은 소멸해버렸다. 청계천을 복개하고 그 위로 고가철도를 놓는다는 구상은 1935년에 나왔으나 그것이 고가도로의 형태로 실현된 것은 1967년이였다. 그 사이 우리는 해방과 전쟁을 겪었다.

해방 당시 서울의 인구는 110만정도였다. 그러나 이후 귀환 동포의 격증, 월남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서울 인구는 폭증을 거듭했다. 도시는 전쟁으

92) 『每日申報』 1940. 5. 7 「우로 전차, 밑에 지하철 - 대도로 변할 청계천」

93) 김기빈, 1993 『서울 땅이름 이야기』 살림터, 58쪽.

94) 박문호 외, 앞의 글, 113쪽. 김기빈, 앞의 책, 58쪽.

로 엉망이 되었다. 더욱이 서울시 재원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일제강점기의 재원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시 기반시설은 그대로인데 인구는 격증하였으니, 서울은 더욱 더 더럽고 불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1960년 현재 서울의 가구당 점유 주택면적은 6평에 불과했다. 특히 천변(川邊)은 여전히 불결과 빈곤의 상징이었다.

1945년 일제가 소개도로로 만들어 놓은 공지(空地), 종묘에서 시작하여 청계천을 가로질러 충무로에 이르는 지대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서울의 대표적 판자촌이 되어 버렸다. 빈민, 부랑자, 창녀들이 이 곳에 둥지를 틀었다.

1967년 청계고가도로 건설에 앞서 이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진행되었고,⁹⁵⁾ 그 자리에 거대한 건물군이 들어섰다. 바로 세운상가였다. 1976년에는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월남민 밀집지대에 대한 재개발이 단행되었다. 평화시장 시리즈와 흥인시장, 덕운시장, 광희시장이 광장시장 동편, 구 청계천 북안(北岸)에 거대한 상권을 형성했다.⁹⁶⁾

서울 정도 이래 청계천은 도성을 분할해 왔지만, 그것이 바로 차별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 후기 세도정치가 펼쳐진 이후에야 북촌(北村)의 세도와와 남촌(南村)의 한미한 양반들은 더 이상 서로 섞일 수 없게 되었고 개

〈그림 4〉 청계천 복개 직전의 천변 판자집



95) 청계고가도로가 기공된 것은 1967년 8월 15일이고, 동대문까지의 제1차 공사가 끝난 것은 1969년 3월 22일이었다. 마장동까지 완공된 것은 1971년 8월 15일이었다. 孫禎睦, 1996 「서울도시계획이야기」 8, 『국토정보』 1996. 12, 128쪽.

96) 孫禎睦, 1998 「서울도시계획이야기」 23, 『국토』 1998. 3월호, 125쪽.

천은 그 계선(界線)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 청계천이 지닌 분할과 차별의 상징성은 극단적으로 강화되었다. 청계천을 경계로 이북과 이남은 지명도 달랐고, 거주 인구의 민족별 구성도 달랐으며, 문화도 달랐고, 도시 기반시설도 달랐다. 청계천은 북촌 조선인가와 남촌 일본인가의 간격을 표현하는 공간이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그렇게 청계천을 마주하고 대립했다.

천변은 불결과 빈곤의 상징이었다. 비가 안오면 악취가 코를 찔렀고, 비가 오면 물이 넘쳤다. 스스로 좋아서 그 곳에 삶의 근거를 마련할 사람은 없었다. 천변은 곤고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음습한 지대였다. 청계천이 서울의 세느강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꿈은 오히려 청계천이 없어졌기 때문에 꿀 수 있다. 복개될 때까지, 청계천은 도시의 암종(癌腫)이었다.

이제 청계천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청계천이 복개되었다고 해서 서울의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분열과 분할은 식민지배의 직접적 결과였지만, 식민지배의 종결과 동시에 끝나지 않았다. 1970년대 서울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3·1빌딩과 3·1고가도로(청계고가도로)가 그 지위를 한강변의 63빌딩과 올림픽 대로에 넘겨준 것처럼, 청계천이 갖고 있던 분할과 분열의 상징으로서의 지위는 대부분 한강에 넘겨졌다. 강남이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남촌과 북촌의 시대는 끝났고, 그 대신에 강남과 강북의 시대가 열렸다. 그렇다고 해서 청계천의 역사적 상징성마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청계천은 이제 땅 밑을 흐르고 있지만, 그 위에 솟은 고가도로는 여전히 도심을 분할하고 있다. 근래 청계천 물길을 다시 살리자는 논의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지만, 그 물길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청계천을 도시의 암종(癌腫)으로 만들어 왔던 서울 시민 자신의 생활양식과 문화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